

특별기고

한자 교육의 추진과 정자 표기를 위한 교학의 노력 ⑧

7. 일상생활에서의 한자 오기



박동규 영백노인대학 학장

모 기관의 간행물에서 역동(力動)을 역동(逆動)으로, 모 기관의 초청장에서 생각을生覺으로, 친지한테서 보내온 편지에 성명 다음 '님'자를 'ㅁ'자로 표기한 것을 수차 접한 바 있는데, '님'자는 순 우리말이기에 한자로 표기할 수 없다. 바른 표기를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표기에 확신이 없으면 사전·사전을 활용해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하거나 그것마저 여의치 않으면 국어로 표기함이 마땅하다. 가끔씩이던 여러 사람이 재삼(再三)의 교열(校閱)과정을 거쳐서 오탈자 없이 간행토록 해야 한다. 한자표기에 과신(過信)하여 유식(有識)하다는 인식으로 지식인연(知識人然)하기 때문에 한자의 남용(濫用)으로 우(愚)를 날게 된다.

호적부(戶籍簿)나 주민등록부(住民登

錄簿)상에서는 성명만은 한자로 기록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담당자의 한자 이해력의 부족과 소홀한 업무처리로 가끔 오기하게 되고, 정자(正字)가 아닌 약자나 속자를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명은 정자로 표기함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다.

호적담당자는 한문에 대한 식견(識見)이 낡아지고 책임감이 있는 공무원이 배제되어야 한다. 출생신고 당시 성명의 오기로 후일 정정(訂正)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수정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확한 표기를 해야 한다.

컴퓨터에서 흔히 한자나 한자어를 색지(索字)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재삼 확인하는 노력이 있어야 바른 표기를 하게 된다.

2005년 봄에 노인대학 학로(學老)와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 바 있었는데 구경무대 자리에 '天下第一福地'의 입석(立石)이 있었는데 第一을 弟一로 음각(陰刻)되어 있었고, 칠궁(七宮) 중 덕안궁(德安宮)의 현판(懸板)에서는 '德'자에서 '一'자가 '丕'자는 '뎨'자에서 중간에 점 1획을 탈락시켜 '丌'자 두 글자를 포개서 표기한 것을 볼 수 있었

는데 지금이라도 수정(修訂)해야 한다. 노인대학에는 할아버지·할머니가 학습대상인데 학교처럼 학생이라고 호칭할 수 없고 이름을 부르기도 어색하다.

2005년8월 어느 일요일 모 방송사의 진품명품(珍品名品)의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서 공개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친필(親筆)인 愛己愛他를 감정을 의외해서 2000만원의 감정가가 매겨진 이 글씨 가운데 '愛'자의 '心+友'의 부분을 '友'로 오기된 것을 감정위원의 지적이 없이 그대로 진행된 것을 꽤 아쉽게 생각한다. '愛'자는 '心'의 부수(部數)에 속하는 한자이기 때문에 달리 표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선생의 친필이라 그대로 넘어 갔겠지만 일단은 지적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愛己愛他 보다는 愛己愛人の 표기가 적절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는 己所不欲勿施於人, 勿以貴己而賤人, 敬天愛人 등 문장에서 쉽게 확인이 된다.

이 愛己愛人の 네 글자가 담고 있는 의미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낀다는 도산 선생의 좌우명(座右銘)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명언(名言)이나 좌우명(座右銘)은 한자의 정확한 표기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별기고

생태도시를 위한 조건



공명수 대전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오늘날 생태학이 새롭게 주목받게 되는 배경에는 환경이라는 의미소에 내재해 있는 자연과 인간의 분리를 전제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생태학은 자연에 관한 제반 사실을 규명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 상호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생태학적 사유의 핵심적 내용은 자연 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생명체가 각각이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인간이 다른 생명체

결과적으로 오페라의 입장에서 보면, 생태학은 인간의 문화적 활동과 자연의 역동적 상호작용이라는 자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인식을 함축하고 있다.

사실, 생태학은 결코 자연을 단순히 관조의 대상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생태학에는 자연이 인간의 삶과 유기적으로 얽혀 교감하는 삶의 본원적 장소로서의 존재성이 깊게 깔려 있다.

근대 산업사회 이후 그것의 중요성이 외면되었지만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생태학에 내재된 장소의 개념과 그것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생태지역학이나 경관학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학생태학자 뷰얼(Lawrence Buell)은 "반경이 10마일 정도 이내에 위치한 장소나, 혹은 한 나절 정도 걸을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는 장소는 평생 동안 관찰하여도 그것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소로우의 말을 인용

계급이나 젠더와 같은 사회적 관계나 정신적 관념을 포함하는 의미소로 발전되고 있다. 생태학의 논의에서 인간 개인이 살고 있는 주변 지역의 자연경관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생태적 사유의 첫 걸음은 인간 개인의 실존이 살아 있는 지역에 얽힌 정서적 느낌이 담긴 야생적 자연을 새롭게 인식하는 작업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기억과 욕망의 저장고로서의 자연경관은 인간의 심성 및 실존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신대륙의 광활한 자연이 유럽의 장구한 역사와 전통을 극복할 수 있는 자산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된 살아있는 자연의 역사를 학습해야 한다.

유럽의 자연과 달리,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야생 생태 그대로의 황야는 미국적 자연의 진정한 가치요 미국적 장소의 본질인 것이다. 뉴욕 허

교육에세이 72

초등학교에서 강조해야 할 교육



이호연 영평초등학교 교장

초등교육은 기초, 기본 교육으로서 이는 전문적인 교육, 기능을 연마하는 교육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필자가 교직에 근무하면서 시종 초등학교에서 강조했으면 하는 덕목이 있으니 이는 환경호르몬 예방교육과 식습관 교육이다.

환경호르몬은 내분비계장애물질로서 생물체에서 정상적으로 생성·분비되는 물질이 아니라, 인간의 산업 활동을 통해서 생성·방출된 화학물질로, 생물체에 흡수되면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생체 내 항상성 유지와 성장발육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생산, 운반, 대사, 반응체와 결합 등을 교란시키는 화학물질이다.

환경호르몬은 인체에 흡수돼 마치 호르몬처럼 극미량만으로도 생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면역기능을 떨어뜨려 암을 일으킨다든가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등 영장종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내분비 교란물질'이 보다 정확한 이름이다.

본래 생물이 지니고 있는 호르몬은 생체 내에서 합성되어 혈액 내에 방출됨으로써 생체의 모든 생리적 현상을 균형 있게 조절해 주는 조절 물질이다. 그 예로, 태아의 성장이나 발육뿐만 아

니라 성인에 있어서도 각종 장기들에서 수많은 기능을 수행하며, 인체의 항상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환경호르몬의 오염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 환경부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모 산업단지의 경우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이자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의 대기농도는 일본의 2배가량 되었다고 한다. 환경호르몬의 영향으로 일본 남성들의 정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이렇듯 심각한 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시켜야 그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 어려서부터 생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하여 교육시킴으로써 평생 동안 이에 대한 심각한 피해로부터 예방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의 생성과정을 지도함으로써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는 이중적인 교육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다음으로 식습관 지도에 관해서다. 식습관은 개인차가 큰 만큼 개인에 알맞은 맞춤형 식습관 지도 또한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평균 1인당 1일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약 300g정도 된다. 전체적으로 환산하면 1일 14,000t 정도 생산된다.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하기 어렵고, 매립하려고 해도 음식물쓰레기를 매립 처리할 경우에는 질소 및 유황 화합물에 의한 악취발생과, 파리·모기 등의 해충번식을 유발하며, 농노도 침출수가

발생하여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매립지를 잘못 관리할 경우 폐기물 문제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대기·수질·토양·지하수오염 문제까지 발생시킨다.

소각 처리할 경우에도 음식물쓰레기 자체의 낮은 열량과 많은 수분함량으로 인해 소각효율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완전 연소로 각종 유해물질의 배출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음식물쓰레기의 처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 중요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은 비계획적인 식습관에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앞에서 맞춤형 식습관 지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맞춤형 식습관 지도를 위해서는 개인의 식습관에 맞추어 성장과정에 반드시 섭취해야 할 열량과 식품을 표준화해서 제공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개인에게 알맞은 식사 내용을 알면 지나치게 많은 식사를 하지 않아 비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도 줄일 수 있는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무계획적인 식습관으로 말미암아 비만이 문제가 될 때는 개인적으로 비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지출을 유발하게 된다. 아울러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는 제 2의 환경재앙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선결문제는 학생 개인에게 맞춤형 식습관 지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다.

정서적 느낌, 기억, 욕망의

저장고로서의 야생적 자연에 대한 사유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공생 공존하며 생태계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층생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태적 사유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자연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나 인간중심이 아닌, 자연의 입장에서 자연을 접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생태학은 생태적 이해력의 함양이다.

우선, 생태학적 이해력과 관련하여 미국의 자연사를 연구한 존 오페리(John Opie)의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페리는 삶의 근원적 배경으로서의 자연이 그 자체의 고유한 존재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 입각해 우리에게 자연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있다.

첫째로, 기존의 환경론자의 시각에서는 자연을 인간의 문화적 활동이 영위되는 부수적 배경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생태학의 시각에서는 야생생태를 포함하는 자연 자체가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중요 인자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로, 생태학적 사고는 지역개발이나 국민총생산과 같은 성장 이데올로기에 치중하여 자연을 남용하는 기존 환경론자들의 편협한 인식을 비판한다.

셋째로, 생태학자들은 기존의 환경개발론자들의 논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동시에 자연훼손과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상호 유기적인 시각을 잃지 않고 있다.

하면서 장소에 내포된 삶의 존재성을 강조하고 있다. 뷰얼의 입장에서 보면 장소는 그것의 가치를 단번에 인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인간의 정서적 느낌이 강하게 얽혀있는 삶의 그물망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기억과 욕망도 함께 축적되어 있다.

특히, 뷰얼은 인간과 장소의 상호 복합적인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장소는 인간 개개인에게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강한 귀속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근원적 복리(well-being)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소는 주변환경과 관계형성을 통해 그것의 가치가 성립되기에 이웃의 장소와 유기적인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의 복리는 극대화될 수 있다.

또한, 장소는 그 자체로서 존재성을 지니기에 의식과 결부된다. 장소에 내포된 존재성은 발전할 수도 아니면 퇴락할 수도 있는 가변적인 공간임에 틀림없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물리적 공간이 모두 장소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얼마든지 자연으로서의 존재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생명체의 생존에 기여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은 장소로 얼마든지 변모된다는 점에서 도시의 아무리 척박한 공간이라도 장소로서의 기능을 재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장소는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자연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스든 강변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화폭에 담은 토마스 코울(Thomas Cole)은 유럽의 풍경과는 차별화된 미국적 풍경의 특징으로 문명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성을 강조하였다.

"미국의 풍경은 구라파인들에게는 생소한 자랑스런 특징이 있다. 미국적 풍경의 차별화된 인상적 특징은 그것의 야생성에 있다." 신으로부터 외면되었던 거친 황야가 꿈과 희망이 숨쉬는 신생 공화국의 자긍심의 원천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어 장소의 본질을 살리는 생태학적 지혜를 스스로 실천하였기에 이들은 신대륙에 프랑스인이나 영국인의 정서적 느낌이나 기억이나 욕망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존재성을 자연 속에 투사하였기에 현재 미국적인 야생성을 통해 그들의 자긍심을 선명 받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유럽의 자연과 차별화를 시도한 신대륙의 예에서 보듯, 아직 개발되지 않은 야생성이 남아 있는 포천의 생태도시를 위한 조건은 생태학적 장소의 지혜에 그 해답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우리가 포천을 서울 같은 포천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포천의 생태도시의 꿈은 멀지않아 슬픈 악몽으로 변할 것이다.

이는 오로지 생태도시를 위한 포천인들의 생태학적 상상력에 대한 인식력에 달려 있을 것이다.

식품을 선도하는 기업

영동식품

귀하신 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20년간 오로지 믿을 수 있는 좋은 제품만을 제조·판매하여 소비자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신념은 변함없습니다"

代表 文宰吉

< 생산품목 >

- 영동국수·소면
- 영동메밀·칼국수
- 곰표국수·소면
- 곰표칼국수
- 정훈우동·스파게티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359-2
 ■전화 : 031-535-5773
 ■팩스 : 031-534-1313